

협회소식 / 91

건축계소식 / 97

현상설계 / 104

계획작품 / 109

전시리뷰 / 110

해외잡지동향 / 112

회원현황 / 119

통계(설계도서신고현황) / 120

협회소식 KIRA news

신·구회장 이취임식 거행

11월 6일 협회 중회의실에서

우리협회는 지난 11월 6일(금) 오전 11시 협회 중회의실에서 신·구회장 이취임식을 거행했다. 역대회장을 비롯 시·도건축사회 회장, 그리고 본부 및 서울건축사회 임직원 등이 자리한 가운데 거행된 이날 이취임식에서 김영수 회장은 이 임사를 통해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인 만큼 우리 모두가 화합하고 단결해야 한다”며 “다하지 못한 아쉬움에 대해서는 남은 정열과 모든 인생을 협회에 재투자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23대 회장에 취임한 신임 이의구 회장은 “회원의 업역확대와 서비스 극대화, 협회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며 이를 위해 임직원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취임식 광경



김영수 전임회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하는 신임 이의구 회장

제33회 정기총회 개최

제23대 회장에 이의구 회원 당선



제33회 정기총회 광경

우리협회 제33회 정기총회가 지난 10월 29일(목) 오전 10시 20분에 협회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재적의원 6백71명중 5백97명이 참석한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정관 개정(안)」 등 8개 부의 안건에 대한 심의와 의결이 이루어졌다.

이날 총회는 협회 고문 등 내·외빈이 함께 자리한 가운데 개회사, 공로회원에게 대한 공로패 수여, 전회 회의록 승인, 추대회원 추대보고, 주요업무 보고, 감사보고, 부의안건 처리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김영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의 시련을 인내로 바꾸고 좌절을 기대로 탈바꿈하지 않고서는 또 다른 내일을 남보다 먼저 환희로 맞이할 수는 없다”며 “새로운 시각과 관념으로 우리앞에 가로놓인 과제들을 하나하나 헤쳐나가면서 새로운 성취감과 남다른 희열을 꾸준히 창출하는 스스로의 전환점을 마련할 때”라고 밝혔다. 또한 김영수 회장은 “새로이 탄생될 20세기의 마지막 새 집행부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책임아래 선택된 21세기의 준비팀인만큼 끝까지 믿고 맡겨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대의원님들이 줄곧 든든한 그 후견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함과 함께 “다하지 못한 아쉬움에 대해서는 남은 정열과 모든 인생을 협회에 재투자”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교통부장관은 이향렬 차관보가 대독한 처사를 통해 “정부는 건축설계분야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능

력있는 업체가 성장하도록 각종 제도를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며 "건축사협회는 변화하는 건축설계시장에서 우리 건축설계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발전할 수 있도록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임기가 만료되는 회장과 이사 7인, 감사 1인에 대한 임원개선에서는 4명의 후보가 출마하여 1차 투표에서 다득표한 이의구 후보와 이문우 후보가 2차 투표에서 경합한 결과 총 투표자 5백 28명중 3백59표의 지지를 얻은 이의구 회원이 제23대 신임회장에 당선되었고 감사에는 김인곤 회원이 추대되었다. 이번 총회의 각 의안별 의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호의안: 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
-정관중 아래의 사항을 개정키로 함.
(대의원 선출)
...대의원은 각 건축사회 단위로 정회원 수를 기준으로 20인마다 1인의 비율로 선출(그 단수가 10인을 초과할 때 1인을 추가 선출)<대의원제>
...건축사회의 대의원제 도입
- 제2호의안: 99년도 전국공통운영회비 결정의 건
- 제3호의안: 98년도 합회비관리회계 제

제33회 정기총회 / 개회사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이렇게 청명한 가을날에 건설교통부 장관님을 대신하여 참석한 이향렬 건설교통부 차관보님, 역대 회장님들과 대의원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우리 협회 제33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의 우리 협회가 있기까지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축하와 격려를 보내주신 귀빈들과 단체장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전국의 대의원 여러분!
오늘같이 좋은 날, 저는 감히 IMF를 우리들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시련을 인내로 바꾸고 좌절을 기대로 탈바꿈하지 않고서는 또다른 내일을 남보다 먼저 환희로 맞이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8·15 해방과 6·25동란이 바로 엇그제인데 지금의 우리는 차라리 행

- 2차 추가경정수지예산(안) 추인의 건
- 제4호의안: 99년도 회계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제5호의안: 입회비 임의적립금 사용 승인의 건
(이상 일괄 상정)
- 제6호의안: 공제규정 제정(안) 승인의 건
-유보
- 제7호의안: "대한건축사협회 장학회" 운영규정 제정(안) 승인의 건
-원안통과
- 제8호의안: 임원 개선
-신임회장에 이의구 회원을 선출하고 감사(1인)에 김인곤 회원을 추대하고 신임이사(7인)선출은 신임회장에 게 위임함.



李義求 신임회장

복하다고 위로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지금부터라고, 그리고 새로이 시작한다는 마음이면 그 각오 또한 새로와질 것 아닙니까? 이제 새로운 시각과 관념으로 우리 앞에 가로놓인 과제들을 하나하나 헤쳐나가면서 새로운 성취감과 남 다른 희열을 꾸준히 창출하는 스스로의 전환점을 마련할 때입니다.

우리 건축사들은 그 어느 때보다 전문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자부심으로 재무장하고 우리에게 지워진 이 시대적 과업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격변기의 용장이 다시한번 되어봅시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窮則通"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2년전 저의 취임 때가 새롭습니다. 대의원님들의 절대적인 지원과 협력에 보답하는 길, 거기에는 오로지 전력과 전심이 아니고서는 하나도 이를 수 없다는 絶大絶命의 위기감 뿐이었습니다.

약력

- 1941년 1월 15일생
-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졸업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창건축 대표이사
- 서울시 건축위원회 위원
- 국방부 특별건설 심의위원회 위원
- '91 대한건축사협회 이사(홍보·편찬위원장)
- '92 4회(파키스탄)아카시아 총회 한국대표
- 16대 서울시건축사회 회장

신임임원 명단

- 이사
柳聖熙 / 류성희건축사사무소
朴成吉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예성
尹榮才 / (주)건축사사무소 유신건축
李寬永 / 한인종합건축사사무소
李宗正 / 아튼건축사사무소
鄭在京 / (주)원일종합건축사사무소
趙泰鍾 / 건축사사무소 마당
- 감사
金仁坤 / (주)동일건축사사무소

건축사연금청산의 후유증으로 78억의 세금 때문에 협회는 압류딱지가 나붙었고,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에서는 재벌건설업체들이 우리의 업역전체를 송두리째 앗아가려는 찰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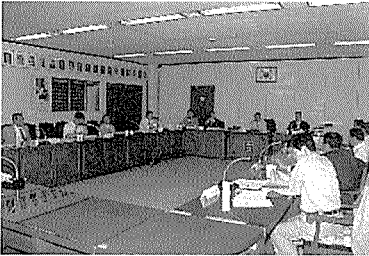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듯이 준비된 것, 이루어야 하는 것, 그리고 각오한 것이 있었기에 "盡人事待天命"한 것이지 결코 자랑으로 드린 말씀만은 절대로 아닙니다.

대의원 여러분!

지난 7월부터 시행하려던 부가가치세 또한 지금은 유보상태라 불행중 다행입니다만 앞으로의 대책 또한 게을리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렇게 대외적인 위기상황은 완전 해소된 것도 있지만, 개방과 개혁차원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도 그 불씨가 남아있음을 생각할 때, 각오 또한 새롭게 다지지 않으면 그 결과 또한 예측불허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사회 개최

“대한건축사협회 장학회”
운영규정 제정



이사회 광경

우리협회의 당면 주요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이사회가 지난 10월 13일(제13회)과 10월 26일(제14회)에 협회 중회의실에서 업무보고에 이어 전화 회의록 승인과 부의안건 처리 순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의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3회

〈부의안건〉

- 제1호의안: 공제규정 제정(안)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하되, 자구수정에 대하여는 특별사업추진위원회에 위임

건축연구소, 건축교육원, 건축정보센터를 차례로 설립하였으며, 사무처개혁 차원에서 책임팀제 및 연봉제를 어느 건설관련 단체보다도 먼저 전격 도입하여 협회구조조정 의 모든 준비를 완료해 놓았습니다. 본부와 16개 시도 전산망 연결설치,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장학회 설립 또한 감격적이었습니다.

대의원 여러분!

특히 내년은 정부가 “건축문화의 해”로 정했습니다.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열어나가는 세기의 전환점에서 우리 건축사가 그 중심에 설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크나큰 우리의 직업적 자부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극복과 도전이라는 시대의 명제 또한 우리 건축인 모두가 함께 리드해야 할 숙명적 과업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국민이 어려울 때 우리가 앞장서고 국가가 일어설 때 우리가 밀어주는 “건축문화의 해” 진면목이야말로 국가와 민족을 위한 우

〈제2호의 안〉

예산과목	'98예산액	예산잔액	사용 계획액	예산 과부족	목간 전용액
회 총 회 비	44,433,000	24,929,760	21,000,000	3,929,760	감 2,000,000
의 이 사 회 비	21,952,000	10,431,260	5,000,000	5,431,260	감 4,000,000
비 위 원 회 비	30,401,000	4,414,900	10,414,900	-6,000,000	증 6,000,000
중장기발전 사업 비	264,766,000	242,857,500	5,857,500	237,000,000	감 200,000,000
사 조사연구비	116,650,000	81,252,010	11,252,010	70,000,000	감 60,000,000
출판사업비	501,197,000	194,343,470	119,343,470	75,000,000	감 50,000,000
비 홍보사업비	200,000,000	194,163,000	49,163,000	145,000,000	감 120,000,000
연 수 비	89,900,000	89,292,000	792,000	88,500,000	감 54,000,000
보 조 금	365,860,000	176,500,770	659,915,700	-483,414,930	증 484,000,000

기로 함.

- 제2호의안: 예산 목간전용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함.
- 제3호의안: 보조금 사용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함.
- 제4호의안: “대한건축사협회 장학회” 운영규정 제정(안)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함.
- 제5호의안: 99년도 대한 건축사협회 장학회 특별회계 사업계획 및 수지에 산(안)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함.
- 제6호의안: 제33회 정기총회 의제 변경 승인의 건
- 제7호의안: 추대회원 추대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함.

〈제3호의 안〉

건축사회	지원 한도
서울	142,628,580
부산	27,475,000
대구	24,914,840
인천	23,420,100
광주	19,944,800
대전	18,761,050
울산	27,526,060
경기	109,911,200
강원	35,272,500
제주	10,397,500
충북	15,161,500
충남	40,057,500
전북	28,684,980
전남	17,680,060
경북	21,107,010
경남	20,793,020
합계	583,735,700

리의 건축적 소명이요 세계와 인류를 위한 우리의 문화적 양심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화합하고 단결하여 모든 마음과 에너지를 하나로 결집시키는 일입니다. 모든 건축인은 물론 우리 건축사 한사람, 한사람이 서로 이해하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하나가 될 때 “건축문화의 해”는 분명 국민의 신뢰와 보람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며 21세기는 기필코 희망찬 조국의 장래로 남아 또 한 세기를 빛내는 장엄한 建築文化史를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이 정기총회가 이러한 큰 뜻을 담아 우리 협회가 비상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되고 더불어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승화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새로이 탄생될 21세기의 마지막 새 집행부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책임

아래 선택된 21세기의 준비팀인만큼 끝까지 믿고 맡겨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대의원님들이 줄곧 든든한 그 후견인이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저 또한 白衣從軍의 마음으로 제가 다하지 못한 아쉬움에 대해서는 남은 정열과 모든 인생을 협회에 재투자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의 在任期間 중에 협회의 온갖 어려운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앞장서 협력하고 헌신하여 주신 모든 임원님과 시·도 건축사회 회장님, 각 위원회 위원님들, 또 여기 만장하신 대의원님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대한건축사협회의 자랑스러운 6,800여 회원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에 언제나 행운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하면서 이임 인사를 결해 개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998. 10. 29.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김영수

〈제6호의 안〉

당 초	변 경
제1호의안: 99년도 전국공통운영회비 결정의 건	제1호의안: 99년도 전국공통운영회비 결정의 건
제2호의안: 98년도 입회비관리회계 제2차 추가경정 수지예산(안) 추인의 건	제2호의안: 98년도 입회비관리회계 제2차 추가경정 수지예산(안) 추인의 건
제3호의안: 99년도 회계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제3호의안: 99년도 회계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안) 승인의 건
제4호의안: 입회비 임의적립금 사용 승인의 건 (추가) (추가)	제4호의안: 입회비 임의적립금 사용 승인의 건 제5호의안: 공제규정 제정(안) 승인의 건 제6호의안: "대한건축사협회 장학회" 운영규정 제 정(안) 승인의 건
제5호의안: 임원개선	제7호의안: 임원개선

- 제8호의안: 공로회원 표창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성명	생년월일	사무소명	입회년월일
김인모	1916. 1. 9.	김인모건축사사무소	1965. 8. 16.
김우성	1945. 8. 23.	(주)아키펀랜 종합건축사사무소	1984. 4. 30.
방철린	1948. 12. 1.	(주)인·토 종합건축사사무소	1987. 12. 4.

- 제9호의안: '98한국건축문화대상 수
상자 표창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제33회 정기총회 / 치 사

존경하는 김영수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님, 그리고 대의원 여러분과 내·외귀빈 여
러분!

오늘 대한건축사협회 제33회 정기총회
에서 여러분을 모시고 치사를 드리게 된 것
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건축사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새로운 21세기를 목전에 두
고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습
니다.

94년 세계무역기구의 출범으로 세계는
국경없는 무한경쟁시장으로 변모했으며 지
난해 말에 닥쳐온 외환위기 사태는 우리 경
제 모든 분야에 걸쳐 감내하기 어려운 구조
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건
설경기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건축설계업계
는 다른 어느 산업보다 심각한 어려움에 처
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료가 몇 달째 일감을 찾

○ 제14회

〈부의안건〉

- 제1호의안: 중앙윤리위원회 결정사항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경북건축사회 소속 권일수, 고목훈
회원에 대하여 권리정지(고목훈 6개
월, 권일수 4개월)로 결정한다.
- 제2호의안: 『전문직 부가가치세 부과
반대성명서 신문게재』 참여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하되, 지출금액은 회
장에 위임함.

지 못하고 스스로 정든 직장을 떠나는 현실
에 있어서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주무
장관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
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전문가
로서의 긍지와 사명감을 잃지 않고 대국민
서비스에 진력하고 있는 건축사 여러분 모
두에게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건축사 여러분!

정부는 이와 같은 건축설계 업계의 어려
움을 극복하고자 건설경기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
하여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자율화하고 중도
금 대출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분양권의 전
매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

또한 건축과 부동산경기 부양을 위하여
건축관련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을 폐지하고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토지법을 대폭 개정하였습니다.

'어둠이 깊으면 곧 새벽이 온다' 고 하지

'98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 거행

영예의 대상에 「울산현대예술관」

우리협회와 건설교통부, 서울경제신문사
가 공동주최한 '98한국건축문화대상의
시상식 및 전시회개막식이 지난 10월
27일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포스코센터
서관에서 거행되었다.

개막식, 시상식 순서로 진행된 이날 행사
에는 우리협회 김영수 회장, 이정무 건설
교통부장관, 김영렬 서울경제신문사사장
등 주최기관장을 비롯, 각 후원단체장 및
건축관련단체장, 그리고 부문별 수상자와
가족, 취재진 등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전시회 개막을 알리는 테이프 커팅에 이
어 포스코센터 서관 4층 아트홀에서 진
행된 부문별 입상자에 대한 시상에서는
맨먼저 준공건축물부문 대상 수상자인
「울산현대예술관」의 설계자 노형래(건정
종합건축사사무소)씨에게 대통령표창과
대한건축사협회장상이 수여되었으며, 시
공자인 현대산업개발과 건축주 현대중공

않습니까?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모두 희
망을 갖고 건축설계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여야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건축사 여러분!

오늘의 건축사협회 총회는 한세기를 마
감하고 새로운 세기를 준비하는 건축인들의
축제의 장입니다. 이 뜻깊은 자리를 빌어 평
소 가져 왔던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자 합니다.

먼저 깨끗한 건축행정 풍토를 조성하는
일입니다.

그동안 많은 건축인들이 건축부조리를
없애고자 힘써 왔으나 아직도 국민들은 건
축분야를 비리의 온상인 양 인식하고 대표
적인 규제분야로 손꼽는 현실에 대하여 우
리는 겸허히 반성해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규제가 부정부패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 50퍼센트 이상의 규제를
철폐하여 비리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앨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제개혁의 노력이 소

업에 국무총리표창과 대한건축사협회장상이 수여되었다.

또한 김옥길기념관, 고려포리머(주)사옥, OAK VALLEY RESORT, 씨네플러스, 이태원 다가구주택, 백남학술정보관 등 분상을 차지한 설계자에게 건설교통부장관표창과 대한건축사협회장상, 시공자에게 서울경제신문사장상, 건축주에게 대한건축사협회장상이 수여되었고, 16개 각 입선작의 설계자와 시공자에게는 대한건축사협회장상과 서울경제신문사장상이 각각 수여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한 한창진(한정건축)·대한주택공사·한국주택협회에게는 공로상이 수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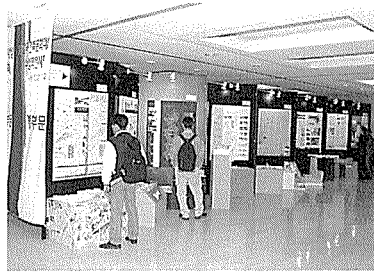
또 준공건축물 부문에 이어 진행된 계획건축물 부문 시상에서는 작품 「공생」·「신당동 중밀도 집합주거」·「시간·흔적·산책 - 한강사 박물관」을 각각 출품하여 은상을 차지한 장원석(서울건축학교)·양명석(한양대 건축과 4년)·강효진(인하대 건축공학과 3년)씨에게 각각 상장과 부상으로 상금 250만원이 수여되었으며 이밖에 동상5점과 입선22점의 출품자들에게도 상장과 상금이 주어졌다.

한편 올해의 각 부문 수상작들은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포스코센터 서

관 2층 다목적홀에 전시돼 일반에게 공개됐다.



시상식 광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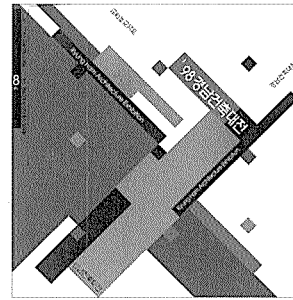
전시관람 광경

경남건축사회, 제8회 경남건축대전

11월 7일까지 접수받아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전시

경남건축사회는 제8회 경남건축대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의 작품접수일은 11월 7일이며 시상은 11월 12일이다. 그리고 이번에 수상된 작품은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경남건축사회 지하 전시실에 전시된다.



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여러분이 현장에서 몸으로 느끼고 있는 불필요한 제도나 관행부터 먼저 폐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앞으로 여러분이 건의하는 규제폐지나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수용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건축사 여러분!

여러분은 정부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 종사자로서 다른 산업이나 다른 어느 건설업 분야의 종사자보다 더욱 높은 청렴성을 갖추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건축설계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값싸게, 빨리, 건설하는데에만 치중한 나머지 건축물의 안전이나 기능, 예술성을 추구하는 데는 다소 소홀히 해 왔습니다. 건축설계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값싸고 빠르게 건설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 건축물의 안전

과 기능, 그리고 예술성이 함께 갖추어질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합니다.

21세기의 건축설계시장에는 정부의 규제와 보호막이 사라지고 치열한 경쟁만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건축설계분야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능력있는 업체가 성장하도록 각종 제도를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건축사협회는 이와 같이 변화하는 건축설계시장에서 우리 건축설계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발전할 수 있도록 구심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보호와 규제가 사라짐으로 인하여 경쟁력이 없는 건축사는 더욱 어려워지고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겠습니다만 경쟁을 통하여 장기적으로는 건축분야가 보다 내실있고 경쟁력 있게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오늘 총회에서는 회장단과 임원진이 새로이 선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 제22대 회장으로 역임

중인 김영수 회장님은 임기중에 건축정보센터를 개설하여 회원상호간의 신속한 경영정보 교류가 가능하게 하고 또한 건축연구소를 내실화하여 건축관련제도 개선에 큰 업적을 남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건축업계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새로이 선출되는 신임회장님은 회원 여러분의 화합과 지혜를 모아 회원의 권익보호와 사회적 지위 신장 뿐만 아니라 새시대의 건축문화를 주도할 수 있는 「건축사像」을 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시어 개방화, 세계화에 맞는 건축업계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가 건축계의 발전을 위하여 새롭게 도약하는 장이 되기를 기원하며 대한건축사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빌면서 치사에 갈음합니다.

1998. 10. 29.
건설교통부장관 이정무

충북·전북·경북건축사회, 회원 친선 등산모임

3도가 만나는 삼도봉에서



충북·전북·경북건축사회 회원 및 직원 100여명이 지난 10월 16일 충북·전북·경북이 한 곳에서 만나는 삼도봉에서 3도회원 친선 등산모임을 실시했다. 이번 등산모임은 3도회원간의 친목도모와 우의를 증진하고 경기위축으로 인한 침체된 분위기에 새로운 활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3도회원은 기념식, 자연보호활동 및 회원간의 친목도모와 건축문화 발전, 건축인들의 건강과 번영을 지원하는 제를 올렸다. 충북·전북·경북 건축사회는 앞으로도 이 행사를 정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아도무종합건축,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건축작품집 증정

(주)아도무종합건축(대표이사 장석웅)은 지난 10월 1일(목) 창립 30주년을 맞아 건축계 원로 및 주요 인사들을 초청하여 창립행사를 가졌다.

또 이날 40여년의 건축작품들을 회고하여 발간한 건축작품집을 증정하였고, 300여명의 건축계 원로와 각계 인사들

의 축하와 격려속에 (주)아도무종합건축의 새로운 30년과 재도약을 기원하였다.



TAS건축, 디자인 학원 개설

건축 스케치·CAD·그래픽 교육

TAS건축의 김인환회원이 "TAS건축 디자인 학원"을 개설하였다.

15년 가까이 건축설계업에 종사하면서 아쉽게 느껴온 '학교교육이 현실적이지 못하고 지나치게 이론적이다, 건축 전문 학원이 없다, 건축 그래픽도 비전문가가 한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설립된 이 학원은 건축 스케치학과(프리핸드스케치, 투시도, 컬러링), 건축 CAD학과(건축 AUTOCAD와 지원프로그램), 건축 그래픽학과(현상설계 및 Presentation 도면)로 나누어 교육한다.

남진관 회원, 「회의를 통한 지도자의 길잡이」 퍼내

국제회의법연구회와 공동으로 단행본 출간

유진건축의 남진관회원이 국제회의법연

구회 연구위원과 공동으로 집필한 회의 진행 가이드북 「회의를 통한 지도자의 길잡이(국제회의법연구회 역음, 도서출판 새벽)」가 출간됐다.

총 6편으로 나누어진 이 책은 제1편 로버트 회의규칙을 바탕으로 한 회의의 이론, 제2편 단체의 결성방법, 회의의 실제, 제3편 국회와 지방의회의 회의진행방법, 제4편 국제회의의 각종 학술 세미나 등에 주로 사용되는 회의 영어, 제5, 6편 각종 회의 사례와 회의시 문제된 문답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회의를 이해하고 회의법을 익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신국판 / 388쪽 / 1만원 / 문의 051-525-0304)

